



### ‘4대강 토론회’ 국토해양부 제안

4대강 사업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동안 일방적인 홍보만을 거듭하던 국토해양부가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종교·환경 단체,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4대강 살리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대국민 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을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최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내부 협의의 절차를 거쳐, 각 단체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명동성당에서 5월 10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시국미사에서는 전국에서 300여 사제와 신도 등 8000여 명이 모였다. 또 전국 사제·수도사 5005명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수도사들은 ‘6·2 지방선거에서 ‘강의 생명’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선택해 4대강 사업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김용택 시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 박원순 회맹제자상 상임이사 등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77인도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주 금강선원에서 29일 금강공사 반대운동 결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주 여강선원에서는 24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종교인 기도회’가 열린다. 이상연 기자

### “소신투표로 미래 열자” 종지협 대국민호소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이광선, 종지협) 5월 10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호소문에서 △민중사회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투표 △투표에 참여해 민주주의 근간을 세워가는 지방선거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 “똥 모아 팔공산 시대 열 터”

### 동화사 신임 주지 성문 스님 임명... “선거제도 비불교적”

“원용화합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중 여부를 조율해 깊은 대립의 골을 메우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던 대구 동화사 새 주지에 성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성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전달식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성문 스님은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이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감했다. 이어 성문 스님은 분사 선거제도가 비불교·반승가적이라며 “전통과 윤리에 비추어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선출된 성문 스님은 앞

으로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선 스님은 선거를 치르면서 생긴 갈등과 상처 치유부터 시작한다. 스님은 팔공산 지역 문화, 문장을 대표하는 8~9으로 여론을 조율하는 (가칭) ‘팔공산중회’를 조직한다.

그밖에도 스님은 교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계획이다. 성문 스님은 “전통적 본사의 개념과 교구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본사의 개념보다는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침체된 동화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신행단체 조직도 생각하고 있다.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문 스님은 “교구 소임을 보고 있는 재적 스님들과 신도, 소



임자들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처리하고 도움을 주는 교구 사무처를 대구 시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광역시 소재라는 위치적 장점을 살려 대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친절,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1998년 종단사태로 멀린 및 공권정지를 받았던 스님에게 어떻게 지냈나고 묻자 “종단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풍토가 생각하고 서툰 부분이 있지만, 종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승 스님은 축하 인사와 함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준비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자, 성문 스님은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에 조성중인 템플스테이 선수원관과 선제협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연 기자

### 법정 스님이 그린 ‘차묵화’

#### 물파스페이스에서 19일 처음 공개

법정 스님이 35년 전 봉은사 대현에 주석할 때 그린 차묵화(茶墨畵)가 처음 공개된다.

서울 관훈동 물파스페이스(관장 손병철)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법정 스님을 비롯한 27명의 스님 작품을 전시한다.

“나는 누구인가(我是誰也)”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물파스페이스가 불교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는 두 번째 기획전으로, 선(禪)과 차를 주제로 한 묵화와 회화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법정 스님의 작품은 가로 35cm, 세로 65cm 크기의 화선지에 차묵화로 표현된 그림이다. 차묵화는 차와 관련된 풍경을 먹을 사용해 그린 그림.

법정 스님의 작품에는 ‘茶經(다경)에 이르기를 차는 바위틈에서 자란 것이 으뜸이요, 자갈 섞인 흙에서 자란 것이 다듬이라 하더라’라는 화제와 함께 주전자와 찻잔이 표현돼 있다.

물파스페이스 손병철 관장은 “불교와 차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스님

은 수행자로서 차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며 “스님의 그림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기보다 수행자로서의 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박한 그림이다. 스님의 그림은 문인화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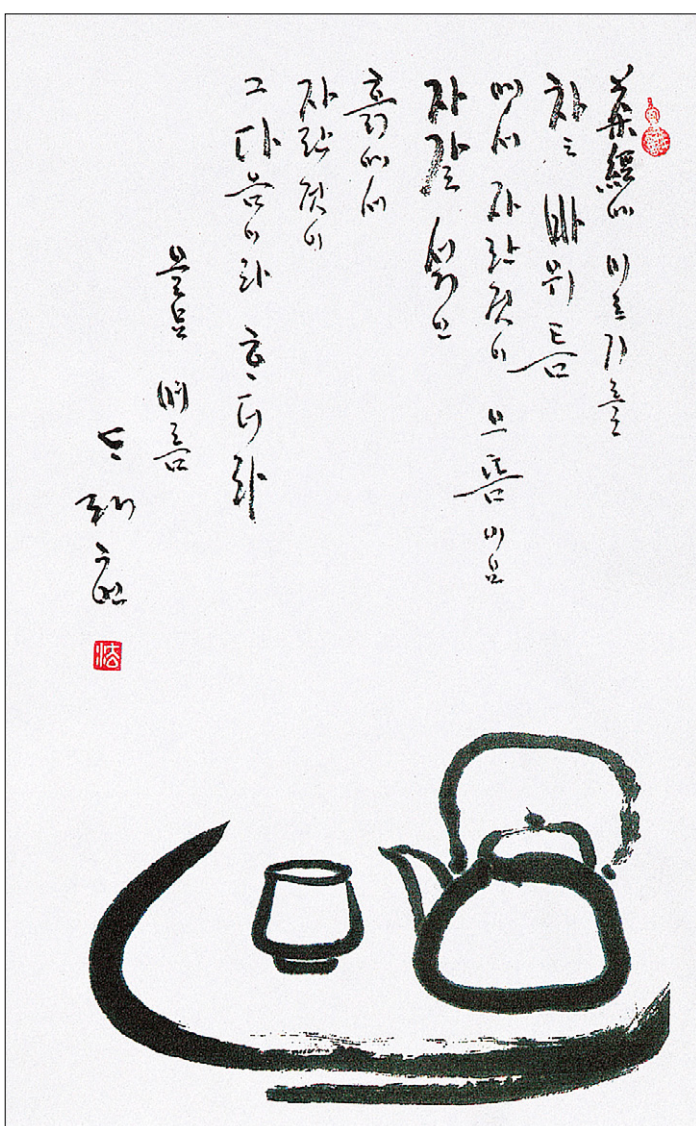
손 관장은 “1971년 법정 스님이 <영혼의 모습>을 출간할 당시, 책 표지에 들어갈 글씨를 부탁했다”며 “스님이 봉은사 대현에 주석하던 시절이었는데, 스님은 글씨를 써준 고마움을 표시로 이 그림을 나에게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입적한 경봉·추담·화하·일타·원담·월하·중광 스님과 생존해 있는 석정·성파·함봉·수안·종림·진관 등 28명의 스님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소개되는 작품은 손 관장의 소장품, 대여, 기증받은 작품들이다. 5월 19일~6월 1일. (02)739-1997

이은정 기자

법정 스님이 35년 전 그린 차묵화. <다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화제로 삼았다.



### MB정부 종교편향적

#### 무설연구소, 지방선거 예비후보 종교의식 조사

6·2 지방선거 출마자 중 58%가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직자가 특정종교 찬양·비난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85%에 달했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법만, 이하 연구소)는 5월 12일 전법회관에서 발표한 ‘2010 정치·행정지도자 종교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3월 29일~4월 2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8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 3.33%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1%(매우 공감 26.1%, 공감 31.9%)가 현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3%였다. 정당별로는 진보신당(100%), 민주노동당(96.2%), 민주당(73.5%) 순으로 야당은 모두 현 정부가 종교편향적이라는 말에 공감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3.3%)이 ‘공감한다’는 응답(34.6%)보다 많았다. 조동섭 기자

지역별로는 서울(64.7%), 광주(75%), 대전(70.8%), 충남(63.6%), 전북(60.8%), 전남(64.5%), 제주(60%) 순으로 공감의견이 평균보다 높았으나 불교 강세지역인 부산(35.5%)·경남(38.6%)과 개신교 우세지역인 인천(35.6%)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평균 이상이었다.

또, 응답자 85%는 공직자의 특정종교 찬양·비난이 정교분리 위반이라 지적했으나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에는 55%만이 찬성해 정교분리 원칙에만 공감할 뿐 처벌에는 부정적임을 보여줬다. 상급자의 종교성향이 하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응답자 중 51%였다.

예비후보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29.9%)>무교(26.4%)>불교(24.2%)>천주교(14.4%) 순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범기독교 신자는 44%에 달했다.

응답자 중 49.1%는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종교로 개신교를 꼽았다. 이어 불교가 27.5%, 천주교가 15.9%로 조사됐다. 조동섭 기자

### ‘봉은사 직영’ 갈등 재연 조짐

토론회 이후 잠잠했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중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집행하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할 것으로 보여 부처님 오신날 이후 총무원과 봉은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2일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원 10여 명을 초청해 소통을 시도했다. 자승 스님은 “얼굴 표정도 펴고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회는 면담 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송진 신도회장은 “총무원이 한국불교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 종단 입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응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봉은사 前 신도회장은 이날 오후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봉은사 법석이 오염되고 있어 찾아

왔다”면서 총무원 측에 봉은사 직영 전환 집행을 촉구했다.

총무원은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은사의 직영사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봉은사 측은 참가하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박용규 총무처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봉은사를 도심포교 활성화를 이루는 종단의 모범포교 등으로 잡고 종단 총책을 모범적으로 구현해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도량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운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질의를 통해 “봉은사 대중들에게 직영전환 설명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형식에 머문 것 같아 아쉽다. 설명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포교전략이 없어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니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신도회는 9일 ‘봉은사 직영지정 철회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동섭 기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더불어 과정이 중요시되고, 대립 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소신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첫째,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합시다.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투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 합시다.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0. 5. 10

(사)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

- 공동대표의장 이 광 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공동대표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공동대표 김 회 중(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 공동대표 김 주 원(원불교 교정원장)
- 공동대표 최 근 덕(유교 성균관장)
- 공동대표 임 운 길(천도교 교령)
- 공동대표 한 양 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